

教授는 누구인가

嚴 廷 植

(西江大 哲學科)

교수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6년이 되었다. 세월이 무척 빠르다는 말이 실감난다. 대학에 처음 부임할 때 年暇(sabbatical leave)를 받고 외국으로 떠나는 교수들을 무척 부러워했었는데 필자가 이제는 이 기간을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보낼지를 중리하고 있으니 말이다. 세월이 무척 빨리 지나갔다는 말은 몹시 바빴다는 뜻도 될 것이다. 그러나 바빴다는 것만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자위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연구에 깊이 몰두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안타깝게만 생각된다. 학회의 일이며 학교에서의 보직, 그 밖에 여기 저기로 불려다니면서 강연을 하거나 글을 쓰는 일로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보람도 있었지만 후회스러운 점도 있다.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람직한 교수란 어떠한 사람인가. 도대체 교수는 누구인가.

교수 생활을 6년밖에 해보지 못한 사람이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 본다는 것은 어쩌면 외람된 일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오히려 더 늦기 전에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두어야 할 일일 수도 있다. 더구나 필자의 경우에는 진지하게 교수가 될 꿈을 꾸어 본 적도 없었고 대학 시절부터 고심해 온 '自我認識'이라는 과제와 계속 씨름해 오다가 학위를 받게 되었으며 그것이 지금 '철학교수'라는 칭호를 받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 너무 생활에 바빠 쫓기다 보니 교수로서의 필자의 임무와 역할과 사명

같은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과연 교수란 누구인가? 지금 세삼스럽게 생각나는 것은 학위 논문 지도 교수가 써 준 추천서의 마지막 구절이다. 그는 "나로서는 이 사람을 아무 견제도 없고 조건도 없이 교사로서 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기꺼이 추천하는 바입니다"라고 글을 맺고 있었다. 이 과찬의 추천서 때문인지 별로 어렵지 않게 모교인 西江大學校 철학과에 직장을 얻게 되었지만 사실 필자는 그 동안 그 추천서에 걸맞은 교수가 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여 온 셈이다. 교수란 우선 학생들에게 영감에 찬 강의를 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이어야 하고,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연구를 지속하여 특창적인 논문들을 계속 발표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지성인으로서의 인품과 덕망을 갖춘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신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필자 자신의 능력과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필자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교육적 풍토와 정치적 상황 그리고 그 밖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교수를 순수한 교수로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한 것도 또한 사실이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무엇보다도 유능한 교사가 되려고 노력해 왔다. 필자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욱 많이 가르치기 위하여 강의록을 준비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수업 시간이 임박할 때까지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소화하기 위해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노심초사하기가 일쑤였다. 철학이 워낙 어렵고 까다로운 과목이라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생활의 주변에서 여러 가지 친근한 비유와 예들을 찾아내 보았고, 때로는 지루함을 덜어 주기 위하여 유모어에 관한 책들을 읽어서 참고로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필자의 강의를 열심히 경청하는 편이었으나 몇몇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다른 책을 읽고 있거나 옆 사람과 잡담을 하기도 하고 꾸벅꾸벅 조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칠판에 무엇을 적고 있는 동안 슬쩍 강의실을 빠져 나가는 학생도 있었다. 특히 3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수강하는 대강의 시간에는 이러한 일들이 심심하지 않게 벌어지는 것이었다. 처음 한 두 해 동안에는 몹시 마음이 상하여 분필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고함을 지르기도 하며 어떤 때는 강의를 아예 중단하고 나머지 시간을 긴장으로 가득찬 훈계와 질책으로 매우기도 하였다. 무엇을 하든 먼저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오늘날, 이제는 강의 이외의 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것은 학생들을 위해서나 필자 자신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불행한 일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다행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

필자가 그것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 교사로서 강의에 임하는 필자의 태도나 준비하는 자세가 그전처럼 풋풋한 열정에 차 있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학생들도 이제는 더 이상 맹목적으로 헌신적인 필자의 강의를 들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필자가 강의를 소홀히 한다거나 학생들이 무성의한 강의를 듣게 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제는 말하자면 ‘프로’의 기질이 생겨서 필자의 강의에 무관심한 학생들에게까지 신경과민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어떤 과목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애쓰지도 않는다는 뜻

이다. 이것이 바로 필자 자신과 학생들을 위해서 오히려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러한 기질이 필자에게 형성된 데에는 물론 필자 자신의 경험이 주요 원인이 되겠지만 선배 교수님들의 충고에도 힘입은 바 크다. 학생들이 내 강의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그들의 무성의나 인격적인 결함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 많은 학생들 중에는 피할 수 없는 사정도 있기 마련이며 필자의 강의의 미숙함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필자에게는 몇몇 학생들의 태도 때문에 대부분의 성실한 학생들의 권리를 짓밟아서는 안 될 의무가 있음을 뒤늦게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필자의 프로 기질에 대해서 여전히 석연치 않은 마음을 떨쳐 버릴 도리가 없다. 과연 필자의 강의에 무성의하거나 무관심한 학생들을 필자가 무시해도 좋은지를 필자로서는 아직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학생들이 한결같이 필자의 강의에 집중해 주고 이에 못지 않게 필자의 강의가 영감과 정열로 가득 차서 수업 시간마다 모두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다음으로 학자로서의 필자의 입장은 어떠한가. 원래 필자는 필자가 ‘타고난 학자’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다. 학자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필자의 성격이 차분하지도 않고 치밀하지도 않아서 집요하게 파고들지 못하는 약점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필자 자신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내세울 것이 있다면 필자의 분야에 관해 강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 뿐일 것이다. 이 과제와 씨름하는 동안, 정신을 집중시켜 파고들지 못하고 관계되는 자료를 여기 저기서 긁어 모아서 서둘러 필자의 신념을 정당화하거나 체계화하려는 태도에 자괴감을 금할 길이 없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선배 교수님 한 분이 자기의 인생은 ‘가위질 인생’이었다고 토로하셨을 때 다른 교수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필자로서는 순간적으로 따듯한 인간적 공감 같은 것을 느꼈으면서도 어쩐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도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남의 이론들만 누더기처럼 모아다가 필자의 이름으로 ‘논문’을 꾸며 내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가, 필자의 가위질은 언제쯤 끝을 맺게 될 것인가.

그러나 정작 학자로서 필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이러한 가위질에조차도 심혈을 기울일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강의 준비에 할애하는 시간은 물론 당연한 것이겠지만 본의 아니게 확보사 주간이며 학생처장 같은 보직을 맡아 격무에 시달려야 했고, 수시로 청탁을 강요하다시피 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피치 못하게 글을 써야 했으며, 때로는 전공이 아닌 분야의 과목들도 맡게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碩學(?)’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들은 학자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필자는 학생처장이란 오묘한 직책을 맡아 오면서 온갖 수난과 역경을 모두 겪었다. 농성 현장에서 학생들과 밤을 지새우기를 밥먹듯 하였으며, 학기중에는 거의 하루 걸터 최루탄의 포연 속을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차라리 自嘲의 미소를 짓기도 하였다. 나날이 이어지는 각종 회의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를 통하여 이 땅의 정치사회적 현실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은 오히려 귀중한 소득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처럼 외롭고 고달픈 학생처장의 임무를 수행해 오는 동안 필자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경험하고 또 어느 정도의 행정 능력도 터득한 것이 사실이지만 학자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던 시기였음을 부정할 도리는 없다. 정말 필자가 어떤 의미로 학자였는지 묻고 싶은 기본인 것이다.

물론 필자의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에서 교수가 학자로 전념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점은 이미 언급한 바 있거니와 너무 많은 분야의 과목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를 깊이 파고 들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

것은 학교마다 제정 문제 때문에 교수를 충분히 충원할 수 없다는 사정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 밖에도 너무나 많은 학생들을 상대해야 하고 학생들의 이념 문제로 지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며 학문적인 수준이 아직 일천하여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들이 공통적인 문제점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학구적인 노력을 배가하여 후배들을 위한 환로를 개척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교수들의 고뇌인 동시에 영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다. 우리는 지금 학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과도기적 전환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우리는 인격을 갖추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한 인간으로서의 교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인 통념으로 볼 때 교수는 지성인 중에서도 최고의 지성인이며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인격으로도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어야 하는 지도급 인사이다. 적어도 이것이 교수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이며,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교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여타 가지 약점들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교수들도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어느 정도의 재산을 지니고 싶어 하고 필요하다면 남들 위에 군림하려는 출세욕도 있다. 때로는 이기적인 면모를 보임으로써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때도 있는가 하면 흔히 웅졸하고 편협한 성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교수도 인간 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적인 약점들을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되는 입장에 있다.

어떤 점에서 교수는 성직자나 승려와도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최고 학부의 교육자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인간 교육이며 대학이 전문인의 직업 양성소가 아니라라는 점을 자처한다면 교수들은 좀더 바람직

한 인간을 배출해 내기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이 인간으로서 더욱 완성된 면모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서의 필자 자신을 돌이켜 볼 때 매우 부끄러운 마음을 억제할 길이 없다. 사실 필자는 대학 강단에 철관을 등지고 수많은 학생들을 바라보며 처음 섰을 때의 그 당혹함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필자는 철관을 바라보며 낯선 외국어로 전문을 하고 낡은 노트에 철학 용어들을 허둥지둥 받아쓰고 있던 대학원 학생이 아니었던가. 이제 줄지에 피교육자에서 교육자로 변신을 하였으니 그 동안 잡자기 필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단 말인가! 물론 필자는 그 동안 피땀 어린 노력을 기울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적 지식을 쌓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그들을 인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인격을 동시에 함양하였는가? 교육자로서의 필자 자신을 상상이라도 해 본 적이 있었는가? 필자는 이러한 질문에 오늘날까지 자신 있게 긍정적인 답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필자는 고된 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인간성이 고갈되고 정서적으로도 메말라져 있는지 모른다. 정말 어떤 사람의 말처럼 의사가 반드시 건강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이 교수가 반드시 인격자일 필요는 없는 것일까.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지금까지 필자는 필자의 학위 논문 지도 교수의 추천서에 언급된 교수로서의 필자의 모습이 과찬의 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았음을 솔직히 털어 놓았다. 물론 그 理想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자로서는 최선을 계속 다하겠지만 어쩐지 불안하기만 하다. 아마 필자로서는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 몹시 안타까운 일이다.

얼마 전 필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다가 어떤 학생의 질문을 받고 지금까지 언급한 '教授論'을 펴기 시작하였다. 물론 필자는 이 땅에서 교수직을 갖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람직한 교수라면 어떠한 인물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설명했고, 실제로는 그러한 인물이 그리 많지 않음을 지적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수들이 적어도 그 중에 한 가지 이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니 바로 이 점에 유의해서 교수들과의 밀착된 관계를 통하여 많은 것을 얻어낼 것을 충고해 주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교수는 교사로서 훌륭하고, 또 어떤 교수는 학자로서 존경 받으며, 또 어떤 교수는 높은 인격을 갖추고 있으니 교수들이 이러한 장점들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혹은 갖추지 못한 점만을 너무 의식하여 불만에 찬 대학 시절을 보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고등학교 시절에 모시고 있던 존경하는 스승님들보다 훨씬 더 존경스러운 사람들로만 대학의 교수들이 구성되었으리라는 환상을 깨뜨려 주기 위해서였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사실 필자는 다른 교수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충고를 필자 자신에게 던지곤 한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교사로서 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격으로서 모든 것을 갖춘 교수도 별로 없지만 이 중에 아무 것도 갖추지 못한 교수도 아직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어떤 교수가 무엇을 더 많이 갖추고 있는지를 찾아 내어 바로 그 점을 존경하고 배우고 본받으려고 애쓰면 필자는 온통 훌륭한 교수들로 둘러싸인 채 살아 가는 느낌에 빠져든다. 그러다 보면 어느날 필자는 이 훌륭한 점들을 모두 갖춘 바람직한 교수가 되어 있으리라는 즐거운 상념에 젖어 본다.

아마 이번에 받게 되는 연가가 필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아니 그러한 계기로 만들고 말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다. 지금까지는 모두 교수가 되기 위한 훈련에 지나지 않았다고 애써 믿고 싶다. 일년 동안 정말 바람직한 교수가 될 수 있는 도약대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리하여 필자의 논문 지도 교수에게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기필코 되어야겠다. *